AURI-자료-2013-1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별책] 근린환경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Policy Measures for Creating Healthy Neighborhood Environment
– The Healthy Neighborhood Design Guidelines

김영현 Kim, Young Hyun
성은영 Seong, Eun Young

(auri

AURI-자료-2013-1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별책] 근린환경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Policy Measures for Creating Healthy Neighborhood Environment
– The Healthy Neighborhood Design Guidelines –

지은이: 김영현, 성은영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3년 10월 30일, 발행: 2013년 10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3,000원, ISBN:978-89-97468-74-4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협약식

한방장수건강마을

“건강한 도시, 건강한 근린환경”

-건강한 근린환경을 만드는 82가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82 Design Guidelines for making Healthy Neighborhood

CONTENTS

가이드라인 요약 2

00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5
01 건강한 근린환경이란 무엇인가? 11
02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환경 21
03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31
04 교통환경 39
05 주거 및 건축환경 44
06 보건 및 체육환경 55

참고문헌 60

가이드라인 요약

가이드라인의 수립배경 및 활용방법

해외에서는 근린환경 단위에서의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Design"을 개발하여 질병이 도시계획과 건물, 가로, 근린의 구조에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고, 도시계획가, 도시설계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엔지니어, 건축주, 정책담당자 등이 도시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시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1] 영국도 마찬가지로 "Building Health : Creating and Enhancing Places for Healthy, Active Live" 등과 같은 계획기준을 개발하여 운용중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기본과제인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 결과물로 만들어졌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간환경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근린환경의 상을 구체적으로 제시가능하다. 특히 공간구조와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건강개념과 관련하여 공간계획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의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법정도시계획 차원은 물론 용도지역·지구제도, 다양한 규모의 도시조성 및 정비사업을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내용 및 구성

기존 문헌에 나타난 건강한 근린환경 또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통해, 건강한 근린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공공성, 환경친화성, 안전성, 신체활동성, 사회적 교류성, 쾌적성과 같은 6개 특성과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공간을 실외 공공공간, 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건축물 내부공간, 위생시설, 보건 및 의료시설의 7개로 도출해 냈다.

---

1) 건강, 신체활동과 관련된 LEED NC, LEED CI, LEED EB, LEED ND 등에 반영

이를 바탕으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한 근린환경에 대해 **'거주민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오픈 스페이스를 지닌 생활환경'** 으로 정의하였다.

상위 연구인'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의 국내외 건강 관련 근린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및 저널을 대상으로 한 근린환경 공간단위별 건강계획요소를 기본으로, 근린환경 구성 공간단위를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환경',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교통 환경', '주거 및 건축환경', '보건 및 체육환경'등 5개로 나누어 항목을 수립하였다. 세부 계획요소간의 중복성을 검토한 후 성격이 비슷한 항목들을 연계하여 소분류로 정리하였으며, 소분류 간 성격이 유사한 항목들을 연계하여 중분류로 구분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 **매우 중요(★), 중요(●), 권장(○) 항목**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실제 현장답사를 통해 촬영한 항목별 모범사례 및 비모범사례의 사진을 함께 실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참고로 삼아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도서관 앞 자전거비치대
성북구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에 자전거비치대를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도모할 수 있음

00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How to use this Design Guidelines?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많은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환경디자인이 공공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가, 도시설계 디자이너, 도시계획가들은 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만, 기타 질병에 대한 이슈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 및 녹색건축 관련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다. 기존의 친환경 건축관련 기준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건축 기준들이 녹색의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는 반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건강" 개념을 포함한 보다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및 녹색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지침은 존재하지만 아직 건강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디자인 전문가는 녹색건축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복지에 미치는 설계 디자인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도시계획 요소들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근린환경을 고려할 때,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녹색도시 및 녹색건축물 관련 지침에 적용함으로써 근린환경에 건강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적용,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근린환경 단위에서의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Design"을 개발하여 질병이 도시계획과 건물, 가로, 근린의 구조에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고, 도시계획가, 도시설계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엔지니어, 건축주, 정책담당자 등이 도시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시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2] 영국도 마찬가지로 "Building Health : Creating and Enhancing Places for Healthy, Active Live" 등과 같은 계획기준을 개발하여 운용중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도시 및 지역 차원의 거시적인 공간단위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건강도시 개념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근린환경 내에 다양한 공간요소를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

2) 건강, 신체활동과 관련된 LEED NC, LEED CI, LEED EB, LEED ND 등에 반영

나 기본방침과 전략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 국내 지역별 사회·물리적 여건에 부합한 한국형 건강도시 계획기준과 구체적인 도시환경 디자인 지침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린재생사업에 속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건강개념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 (누가 이용할 것인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근린환경은 거주민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오픈 스페이스를 지닌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건강한 근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계획·설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단일 분야 차원의 접근을 넘어선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 조경, 복지, 보건 및 의료, 생태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만들어질 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건강한 근린환경은 도로 등의 교통환경,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주거목적의 건축물과 공공 및 상업시설, 병원과 보건소 등의 다양한 공간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분야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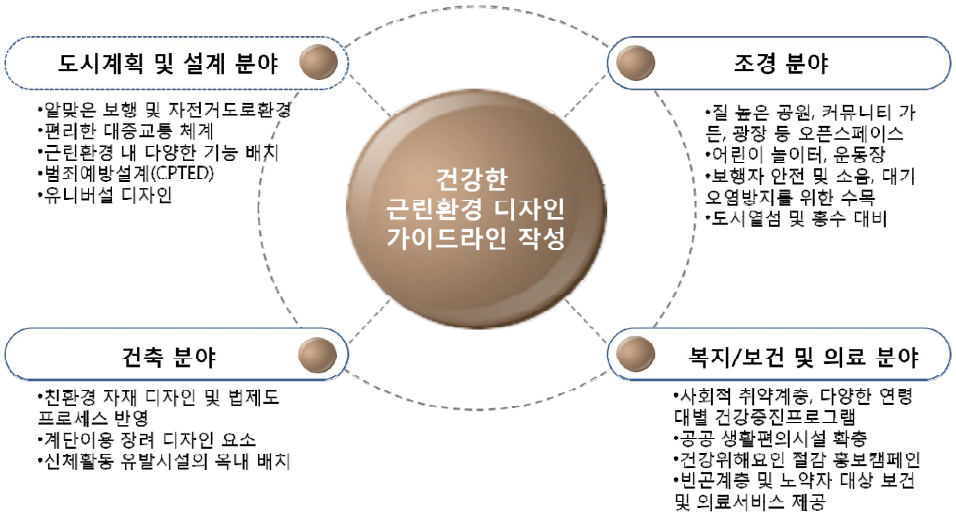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는 거주민들이 걷고 싶고,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한 도로환경, 공공 및 상업시설 등의 주요 목적지를 주거지역 편리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 거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근린환경 내 기능배치, 그리고 범죄예방설계(CPTED) 및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계획 및 설계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 거주민들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물론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대신 계단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나 신체활동을 유발하는 옥내시설의 배치 등을 통해 거주민들의 신체활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조경분야에서는 거주민들이 휴식하고 산책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시키는 질 높은 공원, 커뮤니티 가든, 광장 등의 오픈 스

페이스를 계획하고, 단지 내 영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유발하는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디자인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차량으로부터의 보행자 안전과 소음·대기오염 방지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 및 홍수 등에 적응하기 위한 설계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양한 연령대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용하거나 공공적 기능을 하는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식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보건 및 의료분야에서는 거주민들의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해요인을 절감시키기 위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거나 질이 높고 빈곤계층 및 노약자들을 고려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건강한 근린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분야별 역할]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기존 근린환경 조성 관련 지침들에서 건강관련 환경요소들은 주로 공간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시한 근린환경 건강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간환경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근린환경의 상을 구체적으로 제시가능하다. 특히 **공간구조와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건강개념과 관련하여 공간계획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의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법정도시계획 차원은 물론 용도지역·지구제도, 다양한 규모의 도시조성 및 정비사업을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건강증진과 관련된 디자인 지침을 하드웨어(물리적) 측면과 소프트웨어(관리 및 프로그램) 측면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이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상위과제인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에서는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후 실시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계획기준의 중요도를 도출했다. 각 중요도에 따라 매우 중요(★), 중요(●), 권장(○) 항목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실제 현장답사를 통해 촬영한 항목별 모범사례 및 비모범사례의 사진과 관련 선행연구를 함께 실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참고로 삼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길 바란다.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점(중요함) 이상인 항목
●	〃 , 평균점 이상인 항목
○	그 외 항목

[항목별 중요도 표시]

* 모범 사례(좌)

* 비모범 사례(우)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항목 사진 사례]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주거단지 내에 조성되어,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된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놀이공간

01 건강한 근린환경이란 무엇인가

What is Healthy Neighborhood ?

건강한 근린환경 조성의 필요성

도시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건강위협요소의 증가

현대도시는 도시화,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불안정,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으며, 도시민들은 이와 같은 도시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한 다양한 건강위협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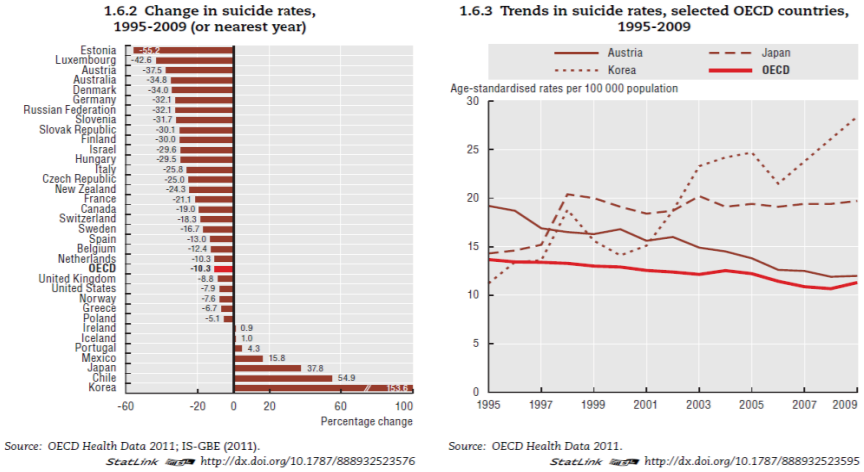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민들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함에 따라 신체활동이 감소하면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실내환경과 관련된 질병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스트레스성 질환을 겪는 환자와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도시열섬 및 대기오염 등에 취약한 빈곤계층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염성 질병의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 비만유병률]

질병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만 유병률[3](%)	29.2	31.3	31.7	30.7	31.3	30.8
남자	31.8	34.7	36.2	35.3	35.8	36.3
여자	27.4	27.3	26.3	25.2	26.0	24.8

* 출처 : 통계청,2010

이와 같은 건강위협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환경을



[OECD 건강보고서에서 발표한 국가별 자살률(2011) 현황]

구성하는 건축물·단지·도시 등 다양한 물리적 공간 차원에서 건강친화적인 계획 및 설계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 및 정책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 제고 및 공간복지 구현을 위한 근린환경의 다양한 가치 추구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의 공급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도시개발로 도시환경에 대한 양적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공간환경에서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양적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 과정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과 상실된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 회복에 대한 도시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어 왔다.**[4)]

또한, 주거 및 상업 등 생활환경 공간에 대한 공급관점에서 공간의 질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도시만들기/ 지역만들기', 도시활력증진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해, 참여정부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여유있고 문화적인 도시'와 같이 경제, 환경,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국토해양부, 2009:13)

이러한 생활환경을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안전·환경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 관점에서 바라보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관점은 현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5)], **주민의 건강, 범죄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 등 다양한 가치가 복합된 근린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공간정책들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 및 노력 요구

건강도시와 관련된 세계적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지역 30개국 1,30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하

3)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 BMI(=몸무게/키의 제곱) 기준으로 25 이상인 분율

4) 두리공간환경연구소(201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도시사업의 성과와 과제, 창조적 도시재생시리즈23, 국토연구원

5) 국토해양부 제1차관,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축사, 2012.9.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에 대한 개념]
(출처 : 국토해양부, 2009:14)

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건강도시 관련 정책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건강도시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 건강도시 선포식 및 박람회 전경]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세미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건강도시 컨퍼런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 역시 대부분 금연, 절주 등의 캠페인 활동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 · 보건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한 사후조치 ·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의 건강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6]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6) 공중보건을 중시했던 헬스케어 1.0, 질병 치료의 시대였던 헬스케어 2.0을 넘어 현대 도시는 일상생활 속의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시대인 헬스케어 3.0으로 접어들었음(삼성경제연구소, 2012,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주민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근린환경 계획

현대 도시환경에서 도시민들의 건강저해 요소는 궁극적으로 도시나 지역의 물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주요사망 원인은 예전의 전염병에서 생활습관 및 신체활동 부족에 의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보건학·의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개인의 건강 문제는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까지 확대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보건 분야에서는 학제 간 연계를 통해 건강문제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생활습관 및 행태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정주공간으로서의 도시환경으로까지 실천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분야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도시 인프라의 양적인 확충에 치중하던 과거의 개발양상을 지양하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정주환경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건강이 도시의 물리적 계획 환경이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었다. Alexia 외(2004)는 **도시화 및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신체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을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도시와 건강간의 상관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Scott Doyle(2006)은 **걷기 좋고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은 신체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상태의 향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고, Takemi Sugiyama(2007)는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고, 다양한 이웃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근린환경의 질**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약자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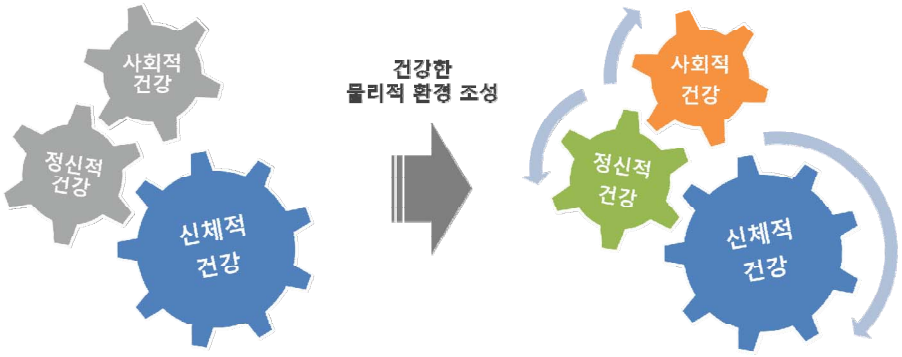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추진해 오던 건강도시 사업은 개인의 건강, 사후조치적 측면에서 질병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위주의 신체적 건강측면에 중점을 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WHO에서 건강도시의 3요소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모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서 건강한 도시로 구현됨을 선포하였듯이 현 정부의 건강도시 관련 주요시책 및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간 미흡하게 다루었던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그간의 프로그램 위주의 건강도시 사업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 생활환경과 직결되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리적 환경개선에도 보다 초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린환경에 초점을 두어 건강도시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정책 및 계획 추진시 적용할 수 있는 건강계획요소들을 도출하고,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공간단위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교통환경, 주거 및 건축환경, 보건 및 체육환경 등의 공간단위별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목표 달성]

건강한 근린환경의 개념

건강도시의 개념과 발전

1986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시작된 건강도시는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가진 WHO 건강도시연맹으로 성장하고 있다.

WHO에서는 건강도시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7] 또한, 건강도시의 질적 구성요소들을 제시(1996)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시건강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구성요소에는 생태계, 도시의 물리적 환경, 도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적 결절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민의 기본적 욕구, 경험과 자원에의 접근, 도시경제, 과거의 유산, 공중보건 및 질병관리 서비스, 건강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건강도시의 질적 구성요소]

건강도시의 질적 구성요소	
① 양질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② 현재 및 미래에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체계
③ 상호 협력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④ 건강, 복지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통제
⑤ 기본적인 생활보장(식량, 주거, 안전 등)	⑥ 시 구성원간 경험과 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
⑦ 혁신적이며 안정적인 시 재정	⑧ 주민간의 상부상조
⑨ 위 영역들에 대한 실천수단의 개발	⑩ 모든 도시민들에 대한 최적의 공중보건 및 질병관리 시스템
⑪ 건강 수준 유지의 파악과 계획(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이환율)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도 WHO에서 제시한 건강도시 질적 구성요소에 맞추어 건강도시에 대한 10가지 조건을 수립하였으며, 이들 요소는 서로 양립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을 증진시키는 도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건강도시의 이상향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건강도시는 개개인의 행태 개선보다는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속된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도시는 지역사회가 도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하고, 건강에 이로

7) Hancock and Duhl(1998) Promoting Health in the Urban Context. *WHO Healthy Cities*. Paper No.1.

운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의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8)]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제시한 건강도시의 조건]

건강도시의 조건
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②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③ 계층 간 부문 간 강한 상호지원 체계와 착취하지 않는 지역사회
④ 개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⑤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요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등의 충족
⑥ 시민들 간의 다양한 만남,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⑦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
⑧ 역사, 문화 및 생물학적 유산 혹은 지역사회 내 모임들과 개인과의 연계를 도모
⑨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의 최적화
⑩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발생

본 가이드라인에서의 건강한 근린환경의 정의

근린이라는 말은 지역사회, 주거환경, 주변지역, 이웃이라는 말과 혼용되며, Porteous(1986)는 근린은 공통된 사회유대를 인식하고,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으로서 물리적 성격과 거주자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지며, 구성원들이 공통된 지역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접촉을 하는 영역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Terrence Lee(1976)는 근린을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범위가 통합된 개념이며, 지역적으로 가깝게 위치하는 모든 사람들로서 그 경계는 모호하지만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친밀한 교제가 성립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근린환경에서의 건강도시는 구체적으로 그 공간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보도권 내에서 자신의 마을, 동네라고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존 문헌에 나타난 건강한 근린환경 또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한 근린환경' 을 거주민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오픈 스페이스를 지닌 생활환경으로 정의**하였다.

8) 김진희(2012), 건강도시 평가의 원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9(4) 67-81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5개 공간단위 분야

본 가이드라인은 '건강개념에 대응하는 근린환경 조성 정책 연구'에서 도출한 근린환경 공간단위별 건강계획요소별 지침을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강 관련 근린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및 저널을 대상으로 근린환경 공간단위별 건강계획요소를 추출하였다. 국내 근린환경의 여건에 맞춰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공간단위를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환경',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교통 환경', '주거 및 건축환경', '보건 및 체육 환경'등 5개 환경으로 구분해 각각의 공간단위별 건강계획요소를 분류하였다. 세부 계획요소간의 중복성을 검토한 후 성격이 비슷한 항목들을 연계하여 소분류로 정리하고, 소분류 간 성격이 유사한 항목들을 연계하여 중분류로 구분하였다.

[근린환경 공간단위별 건강계획요소]

대분류	중분류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환경 (25개 문항)	· 충분한 보도폭 및 경사도 유지를 통한 보행 편의성 확보 ·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 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쾌적성 확보 · 효율적인 보행 및 자전거도로 체계 구축 ·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14개 문항)	·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접근성 개선 · 공원 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교통환경 (9개 문항)	· 교통간 안전성 확보 ·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 ·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 노약자를 고려한 교통서비스 제공
주거 및 건축환경 (11개 문항)	·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배치 · 보행활동을 유도하는 건축 디자인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공기 질 개선 · 청결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보건 및 체육환경 (5개 문항)	· 보건 및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 지역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마트
Changdong Station
PARKING

02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환경

Pedestrian roads & Bikeways

서울시 도봉구 창동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차도 사이에 수목이 심어져 안전을 위한 완충공간이 조성된 사례

계획방향 및 특징

보행 및 자전거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으로 안전성, 편의성, 환경위생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주거공간과 여가 · 상업 · 교육 · 교통 · 의료 등 지역사회 내 관심지역 및 목적지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보행 및 자전거노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역사회별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계획 및 설계한다.

건강계획요소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환경과 관련된 건강계획요소로는

①충분한 보도폭 및 경사도 유지를 통한 보행 편의성 확보,

②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③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쾌적성 확보,

④효율적인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체계 마련

등의 4개 중분류와 25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충분한 보도폭 및 경사도 유지를 통한 보행 편의성 확보

★양방향에서의 보행자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다.

보도 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발생하는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지양하고 여러 명의 보행자들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골목길, 보조가로의 경우 1.5m, 주요도로의 경우 최소 2.5m 가량 확보)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양 방향의 보행자 통행뿐 아니라 노약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충분한 보도 폭을 확보하여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불편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기존의 보행로의 큰 단차로 인해 발생된 위험사고 및 불편함을 줄이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60~120mm이내가 되도록 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보행자가 이동하기 쉬운 경사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수직동선 또는 계단이 없도록 설계한다.

기동성이 적은 노약자나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단차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며, 가로의 경사도를 최소한으로 조성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육교 또는 지하통로 대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위주의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육교 또는 지하통로와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고저차가 발생되는 시설을 되도록 적게 조성하여, 보행자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이미 조성된 육교 또는 지하통로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눈에 잘 띄도록 재정비하는 것 또한 유효하다.[9)]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유아 및 노약자의 보행속도에 맞춘 안정적인 신호체계를 확보한다.

성인의 보행속도에 맞추어진 짧은 신호시간으로 인해 유아 또는 노약자가 횡단보도 이용을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 충분한 보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보도 내 배수구 덮개와 보도마감면의 높이차를 최소화하여 보행도로간 위험요소를 지양한다.

배수구 덮개 공사 후 마감면이 보도와 높이차를 발생시켜 보행자에게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높이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감하여 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보행로 바닥표면은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고르지 못하거나 미끄러운 보행로 바닥표면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보행로 조성 시 내구성이 강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고르게 표면을 조성하며, 최소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도록 조성한다.

9) NY Active Design Guidelines, pp.37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자전거 이동동선은 가능한 한 차량 동선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기존에는 없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면서, 차도의 일부를 할애하는 방식의 도로재정비가 이루어져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가능한 한 차량 동선과 어진 공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가로시설물, 수목, 기타 시설(볼라드, 가드레일 등) 등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대 및 시설을 배치한다.

불가피하게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수목뿐 아니라, 볼라드, 가드레일 등의 완충지대 및 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량과 보행자 공간 사이의 완충지대 설치는 보행량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분리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10)]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육교, 옥외 계단이 있는 장소 등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램프 및 레일을 설치한다.

기존의 육교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자전거 이동에 많은 불편함을 유발하여,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기존의 시설물에 자전거 전용램프 및 레일을 설치하여,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중앙공원

10) NY Active Design Guidelines, pp.40

○야간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적절한 위치와 조도로 외부 조명시설과 방범장치를 설치한다.

가로등이 미설치되었거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져있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용에 불안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절한 위치에 조명 및 방범장치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야간에도 마음 편히 안전하게 보행 및 자전거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쾌적성 확보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가로공간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며, 적절한 위치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배설물 처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보행 구간 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한다.

보행 구간에 별도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조성과 같은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보행로를 포함한 가로 내에서의 금연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진 곳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중앙공원

○휴지통, 벤치 등의 가로시설물을 위생적으로 정비 및 관리한다.

휴지통, 벤치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로시설물을 상시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불쾌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투수성이 높은 보행도로 재료를 사용하여 고인 물 등이 최소화되도록 정비한다.

우수시 투수성이 낮아 보행로 가운데에 물이 고이는 등 보행에 불편함을 유발시키고 있다. 높은 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보행로를 조성함으로써 우천시에도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보행로 표면의 재료와 패턴을 주변 환경과의 어울리는 방향에서 다양화함으로써 보행자의 흥미를 이끌고, 연속성을 유지한다.

단조롭고 표정이 없는 보행로 표면 디자인에서 벗어나, 재료 또는 패턴을 다양화하여 개성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걷고싶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노점상 및 불법 판매시설이 보도를 점거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동식 노점상 및 불법 판매시설이 보행로를 가로막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행에 쾌적한 폭을 확보하면서 판매시설 위치를 확보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 안양 동안구 호계동

* 서울 도봉구 창동

효율적인 보행 및 자전거도로 체계 구축

★주요 교차지점에 보행자 건널목이 적절하게 배치·설치되어야 한다.

보행자 건널목이 주요 교차지점의 적당한 위치에 충분한 규모로 설치하여 보행의 흐름을 연속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보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가독성이 높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목적지와 현재의 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색상 또는 색상대비 사용은 정보전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안내표지판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히 설치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색상대비를 주어 목적지 및 현재 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해야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주요 공원 및 공공시설, 주거단지 등 근린환경 내 주요목적지를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네트워크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근린환경 내에 조성된 주요 공원, 공공시설, 주거단지 등의 주요거점을 가장 단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행 및 자전거 도로를 네트워크화하여, 보행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킹되는 동선은 가능한 한 길고 연속되는 블록을 지나지 않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야간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적절한 위치와 조도로 외부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 보행시 조명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적절한 위치와 조도를 갖춘 외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체활동을 증진하도록 한다.

연속적인 가로 조명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보행이용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1)]

∗ 안양 동안구 호계동

∗ 안양 동안구 호계동

「유럽 여러나라의 주거단지 내 자전거이용 환경조성」

∗ Göteborg, Sweden, 2009

유럽의 다양한 도시에서는 주거단지 이외의 공공공간뿐 아니라, 주거단지 조성 시 자전거네트워크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거단지 내에서 학교, 상점, 이웃한 목표지점까지 쉽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자전거 또는 다목적 통로를 설치하며, 주거단지와 연결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자물쇠시설이 마련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에 안전성과 편리함을 부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 Toward Healthier Apart Neighborhoods, pp.41)

11) NY Active Design Guidelines, pp.40

●보행간 햇볕 등으로 인한 자외선 노출 및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가로수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수가 충분히 식재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름철과 같이 햇볕이 강한 계절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적 측면과 그늘을 고려하여 보행 및 자전거 노선 등의 이동경로에 나무를 심어 보완하고, 주변 휴식장소에 차양을 최대한 마련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주요 공원 및 공공시설 곳곳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유도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또는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것을 막는 등 자전거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보행 간 자연환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가로수 배치 및 가로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나무 또는 기타 조경시설은 가로를 좀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행 및 자전거 노선 등의 이동경로에 나무를 심고, 흥미를 유발하는 예술품을 이동경로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동을 유도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sb 성북

서울시 성북구 삼태기마을 근린공원
주거지역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각종 체육시설,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체력증진 또는 휴식, 친목도모 공간으로 활용되는 근린공원

03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

Parks, Open Spaces & Recreational Facilities

계획방향 및 특징

해외에서는 공원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근접성은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활동 및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12] 국내 연구로는 이경환(2008), 임미나(2012), 김은정(2011)은 해당 지역의 공원 및 녹지공간이 늘어날수록 지역민의 비만도가 낮아지며, 공원 및 산책로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주자의 체지방량이 높아지는 등 근린 환경 요소 중 특히 보행친화적인 근린 환경과 근린공원 접근성이 비만도와 같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 하에, 일상 생활 속에서 건강증진의 거점으로 자주 활용될 수 있도록 인근 주거지로부터 보도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공원, 오픈스페이스 시설에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양질의 공간이 확충됨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계획요소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과 관련된 건강계획요소로는

①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접근성 개선,

②공원 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③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④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등의 4개 중분류와 14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12) NY Active Design Guidelines, pp.30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접근성 개선

★주거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공원이 있도록 계획한다.

거주지에서 최대 500m 보행거리 이내에 근린공원과 같은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을 자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주거지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유도할 수 있는 광장, 텃밭, 커뮤니티 가든 등의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한다.

광장, 텃밭, 커뮤니티 가든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커뮤니티 가든 등은 고밀주거지 내에서 커뮤니티 의식, 지역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문화센터, 우체국, 도서관, 동사무소, 체육관 등의 공공시설과 전통시장, 마트 등의 상업시설 주변에 이용자가 편히 쉴 수 있는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한다.

운동을 주목적으로 광장 또는 공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을 이용한 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의 성격으로 주변에 광장 또는 공원 등의 공공공간을 디자인하여 사람들이 앉아 모임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장소로 만든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공원 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공원 내 체력단련시설, 배드민턴장 등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한다.

단순한 휴식을 벗어나 좀 더 적극적 활동유발을 위한 체력단련 및 훈련기구, 운동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아동발달을 고려한 놀이터, 운동장 등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층 비만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 속에서의 활동 및 여가기회 창출을 위한 시설(놀이기구, 놀이터, 농구대 등)을 조성한다. 공원, 학교 운동장 등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마당, 정원, 지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다양한 연령층(노약자, 어린이, 주부 등)에서 참여할 수 있는 체육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 뿐 아니라, 노약자, 주부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운동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세대가 생활 속에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중앙공원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계절 및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걷기, 운동시설 이용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설(햇빛 차단막, 파고라 등)을 설치한다.

휴식, 만남, 대화를 유발하고 극한의 날씨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와 오픈스페이스 내에 인공쉼터를 조성한다. 여름에는 그늘을 만드는 햇빛 차단막, 겨울에는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우천시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공원 내 산책로에는 적정구간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등의 시설을 충분히 제공한다.

공원에서 산책 중에 피로함을 느껴 잠시 쉬어가고 싶은 경우, 휴식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정한 구간별로 벤치 등의 시설을 충분히 제공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공원 내 안내표지판은 거리, 시설 및 프로그램, 산책 난이도, 소요시간, 소모 칼로리 등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단순한 방향제시의 역할뿐 아니라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산책 코스의 난이도와 소요시간, 소모 칼로리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원을 적극적인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차량도로와 충분히 이격된 거리에 어린이 놀이터 및 벤치, 기타 레크레이션을 위한 시설을 배치한다.

주차장과 인접하여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는 언제든지 어린이들과 자동차 간의 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차도와 충분히 떨어진 곳에 어린이 놀이터 및 벤치, 기타 레크레이션 시설을 두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성북구 삼태기마을의 건강표지판」

성북구 삼태기마을에서는 별도의 근린공원뿐 아니라 주거지역 내의 전신주 또는 가로시설물에 걷기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효과 및 흡연으로 발생되는 질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강표지판을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강오름길, 건강내림길 등의 걷기코스, 마실사랑방, 건강지도 위치 등을 안내하는 건강지도를 제작하여 안내함으로써, 마을 전체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노숙자들이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차지하거나 비위생적인 행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노숙자들이 편의시설을 점거하거나 공원 내 시설물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원 또는 오픈스페이스를 찾는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원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중앙공원

○공원 내 애완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등 비위생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공원 내에 쓰레기통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쓰레기 투기 문제, 이리저리 버려진 애완동물의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해 공원이용에 불쾌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눈에 띄는 곳에 쓰레기통을 적절히 구비하고, 쓰레기투기를 하지 않도록 표지판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중앙공원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구 및 주요 지점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오픈스페이스의 경우 필요시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곳곳에서 일부 주민들이 흡연을 하는 등 공원 이용에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에서는 전면금연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일부 흡연지정구역에서 흡연을 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공원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 서울 도봉구 창동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한다.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서울시 도봉구 창동

어린이들의 이동이 잦은 창원초등학교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음

04 교통환경

Public Transportation

계획방향 및 특징

교통환경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주요 공공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강계획요소

교통환경과 관련된 건강계획요소로는

①교통 간 안전성 확보,

②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

③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④노약자를 고려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4개 중분류와 9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내 노인보호구역

*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서비스

교통간 안전성 확보

○차량 및 보행자전거 교통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등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한다.

야간에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고, 치안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보행로,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에 가로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중앙공원

* 서울 도봉구 창동

★근린환경 내 학교 및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과 같이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30Km/h로 차량속도를 제한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학교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30Km/h 이하로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등 갑작스런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출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012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은 1위에 달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구축

★대중교통 서비스 안내지도 및 표지판은 노약자가 읽기에도 충분한 수준으로 크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는 등 가독성이 높게 설치한다.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을 갖추도록 크고 깨끗한 서체, 무반사소재와 충분한 색상대비 등의 요소를 갖추어 디자인한다. 또한 야간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한다.

* 안양 동안구 호계동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버스 또는 지하철 정거장 이용시 보행활동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과 신체활동 간에 상관관계를 가짐이 입증되었다.[13)]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정류장을 한 곳에 밀집시켜 거점화하며,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도봉구 창동

노약자를 고려한 교통서비스 제공

○인근지역의 병원, 보건소,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병원, 보건소, 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민이 자주 찾는 공공공간 또는 상업시설에서는 노약자를 비롯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노약자를 위한 대리운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마을에서는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를 위한 대리운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까운 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또는 시장 등의 상업시설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13) NY Active Design Guidelines, pp.28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정류장 내 우천, 햇볕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벤치, 그늘막, 쉘터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오랜 시간 서서 대중교통을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그 외 주민들을 위한 좌석공간과 우천, 햇볕, 바람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쉘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한다.

* 안양 동안구 평촌동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대중교통 정류장 및 지하철역의 야간 이용객들을 위해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대중교통정류장 및 지하철 역 등에 적절히 조명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류장을 찾기 쉽게 하며,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안양 동안구 호계동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장애인 지하철 접근시설(보도 경사 등 고려 여부), 수직이동시설(교통약자 지원시설), 안전시설(점자블록, 턱낮춤, 음향교통신호)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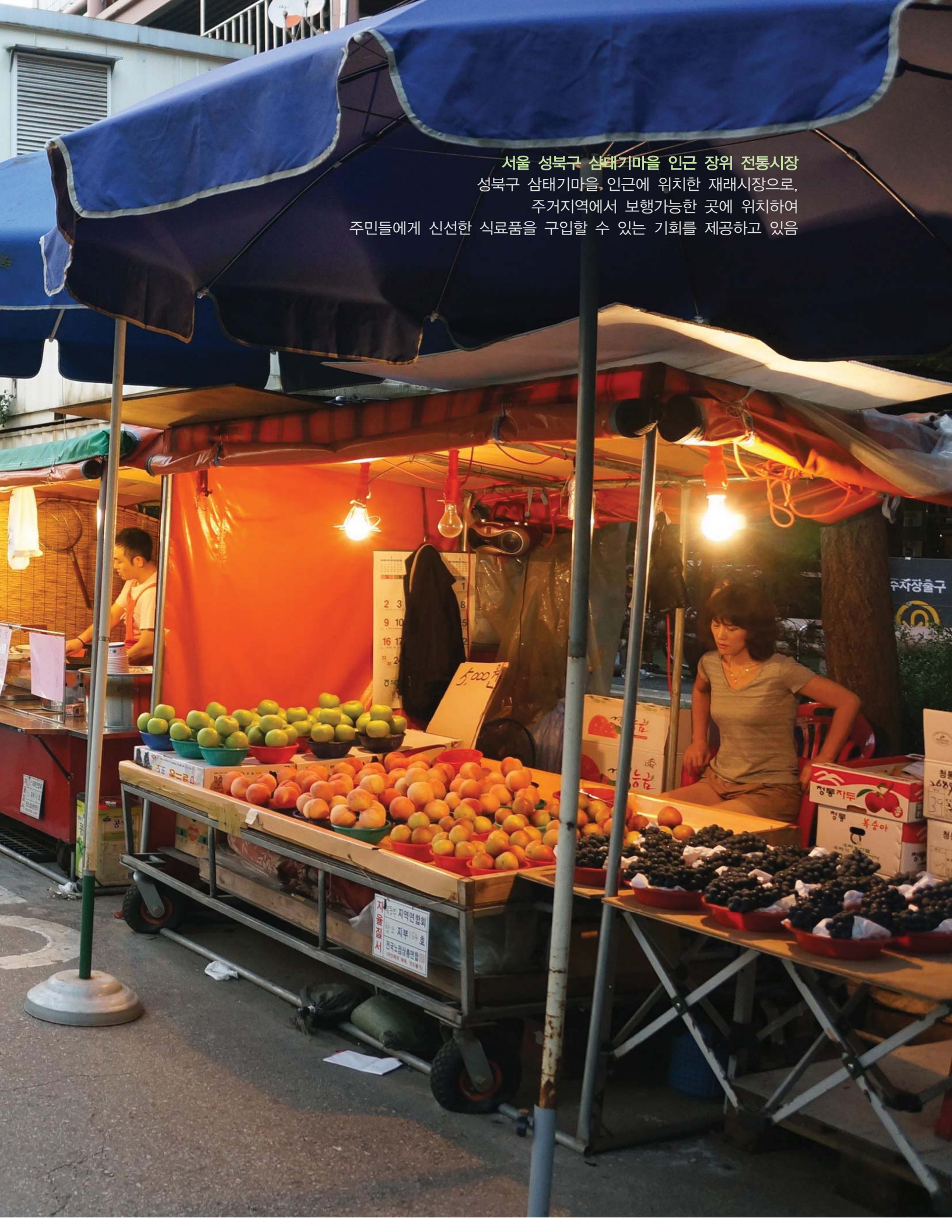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도록 보도경사와 같은 지하철 접근시설, 리프트 시설, 점자블록, 턱낮춤, 음향교통신호 등을 설치하여 배려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조성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05 주거 및 건축환경

Housing & Building Design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인근 장위 전통시장
성북구 삼태기마을 인근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주거지역에서 보행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신선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계획방향 및 특징

주거 및 건축환경은 도시민들이 일상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실내공간에서 신체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설계요소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의 사용 및 소음·악취 등의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건강계획요소

주거 및 건축환경과 관련된 건강계획요소로는

①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배치,

②보행활동을 유도하는 건축 디자인 적용,

③보행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유도하는 주거단지 계획

④건강취약계층을 배려한 주거 제공

⑤심리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거주환경 조성

⑥심리적, 사회적 연대감 조성

⑦건강증진을 위한 건물 프로그램 도입

⑧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공기 질 개선,

⑨청결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의 9개 중분류와 26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배치

○주거환경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재래시장 및 중·대형 마트 등의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보행거리 내에 상점 및 서비스시설이 있으며, 레크레이션 시설, 오픈스페이스, 저밀도의 교통량과 교차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좀더 활동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이런 지역의 주거민들은 신체활동을 좀더 즐기며 비만 및 사망원인 질병을 앓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uman & Bull(2007), Giles-Corti & Donovan(2003), Kavanagh(2005), Saelens et al.(2003))

주거지에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장, 마트 등의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쉽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생활 속에서의 보행기회를 좀 더 제공하여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인근 장위전통시장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걷기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단지 내 기능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배치한다.

학교, 식료품점, 뉴스가판대, 그 외 일상적인 목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을수록 주민들이 더 많이 걷는 경향을 보이며, 상점 및 서비스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외 지역의 노인들보다 더 많이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외출을 한다고 밝혀졌다.[14)]

주거단지만을 밀집시키는 것이 아닌, 학교, 공공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지역을 혼합배치하여, 유아, 청장년층 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걷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생활에 참여하는 기회를 창출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14) NY Active Design Guidelines, 2010, pp.26

보행활동을 유도하는 건축 디자인 적용

○저층(5층까지)부의 계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주요 이동통로에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치에 계단을 배치한다.

주요 이동통로로부터 잘 보이는 장소에 투명소재를 이용하거나 눈에 띄는 색상을 이용하여 계단을 디자인하는 등 계단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 안양 동안구 달안동 주민센터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고층 건물에서는 인접한 층 사이를 보행하여 이동하도록 계단 이용을 포함한 통합적 수직 동선체계를 적용한다.

3개 층 이내의 가까운 층은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고층빌딩 내에서는 계단을 활용한 수직동선체계를 적용하며, 4개 층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15]

* 안양 동안구 달안동

* 안양 동안구 달안동

○양 방향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계단을 설계한다.

충분히 넓게 계단을 설계하여 여러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디자인하여 일상적으로 계단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빌딩에 설치된 넓은 폭의 계단은 계단이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계단이 이동동선에서 잘 보일수록, 접근하기 쉬울수록, 다른 공공이동경로가 끝나는 지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수록 더 계단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16]

* 안양 동안구 달안동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15) NY Active Design Guidelines, pp.70
16) NY Active Design Guidelines, 2010, pp.70

○편안하고 안전한 계단높이와 디딤판을 지닌 계단으로 설계한다.

7인치(약 18cm)의 높이, 11인치(약 28cm)의 너비의 계단이 일반적으로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이용에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적어도 층과 층 사이에는 1개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 계단참 사이에는 11개 이내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한다.[17)]

계단높이, 디딤판을 적절한 수치로 디자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단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안양 동안구 달안동 주민센터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계단의 형태나 색 등을 고려하여 계단을 디자인한다.

밝은 색조의 색상을 사용하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흥미롭고 즐거운 계단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계단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8)]

○계단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단에 채광이 잘 되도록 한다.

계단에 되도록 자연적으로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복도의 75%정도의 조도(약 10fc=110Lux)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19)]

○엘리베이터 근처에 계단을 배치하여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가까이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계단을 배치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계단을 이용하는 또다른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보행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유도하는 주거단지 계획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단지 내 시설이 연계되도록 하며, 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한다.

차량동선으로부터 분리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주거단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되도록 조성하여, 근린 범위 내에서 보행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보행 및 신체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17) NY Active Design Guidelines, 2010, pp.74
18) NY Active Design Guidelines, 2010, pp.76
19) NY Active Design Guidelines, 2010, pp.77

○근린권 내에 배드민턴, 탁구장, 농구장, 축구장 등의 주민 생활체육공간을 계획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탁구장 등의 일상적인 생활체육공간을 계획하여,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안정감을 얻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강취약계층을 배려한 주거 제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저소득 계층 및 서민, 노인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고려한 유형의 주택을 도입하여, 일반 거주지역에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Social-mix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저소득 계층 및 서민을 위한 주택을 확충한다.

저소득 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은 현재 대중교통이 불편한 구릉지 지역에 위치한 곳이 많아, 목적지로의 이동이 힘들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운동 또는 산책하는 것이 힘들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가능한 지역에 차차 그 공급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심리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거주환경 조성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고, 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와 간격의 조명과 CCTV를 설치한다.

조명과 CCTV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범죄유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일조량과 조망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신축되는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지장을 주는 등 신체적, 정신적 및 재산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일조권, 조망권을 보호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주거시설 인접지역에 네온사인 등의 조명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소음을 억제한다.

야간의 네온사인,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공사장의 소음발생은 되도록 야간에 지양하도록 하며, 인근 상업시설의 조명시설 또는 소음발생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차량의 매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지는 간선도로에서 이격하고,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한다.

주거지가 간선도로 인근에 조성된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매연, 소음으로 인해 통풍,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주거지는 간선도로를 비롯한 전철역 등에서 다소 이격시켜 조성하며, 간선도로에는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심리적, 사회적 연대감 조성

○근린공원, 주민센터, 광장 등 주민들 간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

주거지 인근에 근린공원, 주민센터, 광장 등 이웃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 심리적 및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커뮤니티 환경의 계획 및 유지 관리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주거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대표를 선정하여 주민간담회를 통해 근린환경 내 커뮤니티의 계획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지킴이단 등을 조직하도록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건물 프로그램 도입

○이용이 많은 계단 또는 램프와 인접한 층에 주민모임장소 등의 공동생활 공간 등을 배치한다.

건물 내 주민들이 이용량이 많은 계단 또는 램프와 인접한 층에 주민모임 공간을 배치하여, 시각적인 노출을 통해 주민공간이 활발히 이용되는 효과를 얻도록 한다.

○주거 건물 내에 신체활동 공간들을 포함시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건물 내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인근에 간단한 운동기구 시설이 갖춰진 공간을 조성하여, 날씨 또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공기 질 개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을 통해 피부질환을 예방한다.

주거건축 또는 공공건축 건축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등의 유해환경물질을 발생시키는 건축자재와 유해 목재자재가 아닌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아토피, 새집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건강카페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공기 질이 취약한 지하실 및 주차장은 공기정화 설비시설을 설치·관리한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실 및 주차장은 상시 밀폐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의 기관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공기정화 설비시설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성북구 삼태기마을

*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등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규약 및 조례를 마련한다.

학교, 병원, 보건소, 동사무소, 마트 등의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은 이용자가 많은만큼, 유해한 건축자재로 인한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 신축,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약 및 조례를 마련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건강증진 주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쓰레기 분리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쓰레기 분리시설은 자칫 잘못하면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악취가 진동하거나 벌레 또는 고양이가 서식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올바르게 분리수거하고 상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쓰레기 분리시설, 기타 심미적·위생적 불쾌감 유발요소들은 어린이공원, 기타 거주민들이 모이는 공공공간과 이격하여 배치한다.

쓰레기 분리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많은 시설물이다.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광장 등 거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시키도록 한다.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건강카페

성북구 삼태기마을이 건강마을로 조성되면서 함께 설치된 건강카페 「마실사랑방」.
주민들에게 건강정보 제공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06 보건 및 체육환경

Public Health & Physical Activity

계획방향 및 특징

보건 및 체육환경은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지속적인 운영 ·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계획요소

보건 및 체육환경과 관련된 건강계획요소로는

①보건·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②지역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2개 중분류와 8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 성북구 삼태기마을 건강카페에 설치된 체중계, 혈압측정기

* 성북구 삼태기마을 내에 조성된 건강정보 알림판

보건 ·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병원 및 보건소는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쉽게 접근가능한 곳에 계획한다.

주민들이 병원,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시설을 가깝게 느끼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찾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병원, 보건소를 방문하기 쉽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양 동안구 달안동

* 안양 동안구 달안동

●병원 및 보건소에 이르는 대중교통 수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보로 병원, 보건소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민들이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쉽게 방문가능하도록 한다.

* 안양 동안보건소 홈페이지

* 안양 동안구 달안동 보건소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 보건·의료시설의 환승 또는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대중교통의 승하차 또는 환승에 대한 안내방송 시, 정거장 이름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병원 또는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보건·의료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 이번 환승 정거장 이용 시 00병원, 00보건소로 가는 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건강증진 사업 및 프로그램, 의료보험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은 팜플렛 비치, 포스터 전시,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강관련 사업, 프로그램, 의료보험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전달하여, 주민들이 쉽게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건강카페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근린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환경, 야외활동 시간 증가 등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쳐 건강수준을 높인다고 밝혀졌다.(김혜숙·허준수, 2010)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주민체육센터 등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 서울 성북구 삼태기마을

* 안양 동안구 평촌동

○지역 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권장한다.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앓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의 신체상태에 맞는 일상생활능력 지원, 취미, 재활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상담하고, 치매노인을 단기 보호가능한 시설 또는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노년층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주민자치형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상시 건강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민이 원할 때 언제든 전문의료진에게 건강상담 또는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건강피해 이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및 위급상황 알림서비스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노인을 비롯한 독거주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근 병원 및 보건소, 또는 관련 의료진에게 응급상황이 통보되는 알림서비스를 마련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은정·강민규(2011), '도시환경과 개인특성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제27권 제3호, pp.27~42.

김혜숙·허준수(2010),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v.30 n.4.

이경환·안건혁(2008), '근린환경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4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43권 제3호 통권 163호, pp.249~261.

임미나·이재혁·제해성(2012), '도시환경이 거주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도시 내 녹지 및 공원요소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Bauman, A & Bull, F (2007), Environmental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and walking in adults and children: a review of review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Duncan, MJ, Spence, JC & Mummery, WK(2005), 'Perceived environment and physical activity: A meta-analysis of selecte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2, p. 11.

Frank, L, Kerr, J, Chapman, J & Sallis, J(2007), 'Urban form relationships with walk trip frequency and distance among youth',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1, Supplement,pp. 1-7.

Giles-Corti, B & Donovan, R (2003), 'Relative influence of individual, social environment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correlates of walk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 pp. 1583-89.

Heart Foundation(2004), 'Healthy by Design : a planners' guide to environments for active living'.

Kavanagh, A, Thornton, L, Tattam, A, Thomas, L, Jolley, D & Turrell, G(2007), Place does matter for your health: A report of the Victorian Lifestyle and Neighbourhood Environment (VicLANES) Study, University of Melbourne 〈www.kcwh.unimelb.edu.au/__data/assets/pdf_file/0009/61398/VicLanes_Report.pdf〉.

Saelens, BE, Sallis, JF, Black, JB, Chen, D(2003), 'Neighborhood-based differences in physical activity: an environment scale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 pp. 1552-58.

Takano, T, Nakamura, K & Watanabe, M(2002),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senior citizens' longevity in megacity areas: the importance of green open space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6, pp. 913-18.

The New York City Departments of Design and Construction (DDC)·Health and Mental Hygiene, Transportation (DOT)·City Planning(2010), 'Active Design Guidelines :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Design'.